



중국의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및 전망

이소양 연구원

2017년 6월 중국 정부는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개인연금 발전 가속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함. 이는 중국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하락하고 퇴직연금도 아직 미성숙한 상황에서 중국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개인연금 활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임. 전문가들은 세제적격 개인연금제도가 순조롭게 시행될 경우 향후 개인연금 자산규모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다만 연금상품을 개발하는 전문 인력의 부족 및 연금상품에 대한 보험회사의 취약한 리스크 관리 역량은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발전을 제약할 수 있음

■ 2017년 6월 중국 정부는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개인연금 발전 가속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快发展商业养老保险的若干意见”)을 발표함¹⁾

- 2016년 기준 중국 개인연금의 자산규모는 2조 위안으로 추정되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개인연금 자산의 비중이 2.6%에 불과해 중국의 개인연금 발전이 매우 더딘 것으로 평가됨
 - 2016년 기준 한국 개인연금의 자산규모는 310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19.8%임²⁾
- 동 의견은 개인연금 상품 다양화를 위한 조치로서 2017년 말까지 세제적격 개인연금을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함
 - 세제적격 개인연금 시행방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과거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세제적격 개인연금 납입보험료에 대한 소득세 징수 시점을 연금지급단계로 이연시키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임
- 또한 투자 다변화 조치로서 개인연금의 투자범위를 중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해외 투자자산까지 확대할 것으로 밝혔는데, 이는 자산운용 수익률 안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동 의견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질병부터 노후소득보장까지 맞춤형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노령 인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버산업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있음

1) 前瞻产业研究院(2017. 7), “商业养老保险：我国养老保险的后起之秀”

2) 조세경제(2017. 6), “인구 고령화와 연금자산의 중요성”

■ 중국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하락하고 퇴직연금도 아직 미성숙한 상황에서 중국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개인연금 활성화가 필요함³⁾

- 중국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1997년 70%에서 2014년 45%로 하락하였으며 중국 국민연금의 운영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정부의 재정지원을 제외할 경우 중국의 국민연금 당기 수지는 2013년부터 적자로 전환하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 기준 국민연금 당기 수지 적자 규모는 6,500억 위안임
 - 또한 중국 국민연금의 수급자 증가율은 2012년부터 가입자의 증가율을 초과하였으며 2016년 기준 수급자 및 가입자의 증가율은 각각 10.5%, 6.1%임
- 2013년 12월 중국 정부는 퇴직연금 활성화 조치로 퇴직연금 세법 개정안⁴⁾을 발표하였으나, 2016년 기준 중국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여전히 3.0%⁵⁾ 정도에 그치고 있음
 - 중국의 퇴직연금제도가 임의가입 형태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음
-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은퇴 이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소득대체율⁶⁾을 60~70%로 보고 있는데, 이에 따라 중국인의 소득대체율 제고를 위한 개인연금 활성화가 불가피함

■ 중국 동우증권(东吴证券)은 세제적격 개인연금이 순조롭게 도입될 경우 향후 개인연금 자산규모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⁷⁾

- 중국 정부는 2009년 4월부터 세제적격 개인연금 시행에 관해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시행 시점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시행 전에 제도적 개편을 위해 세제적격 개인연금을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나서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동우증권은 중국 개인연금의 자산규모가 2016년 2조 위안에서 2027년 5.2조 위안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였으며 전체 보험산업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13%에서 2027년 25%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함
- 다만 연금상품을 개발하는 전문 인력 부족 및 연금상품에 대한 보험회사의 취약한 리스크 관리 역량은 세제적격 개인연금 발전을 제약할 수 있음 **kiri**

3) 중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한국과 유사하며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 사적연금제도인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4) 이소양(2013, 12), 「중국의 기업연금 개인소득세 개정 및 시사점」, 보험연구원

5) 2016년 기준 전국 근로자 수는 7억 7,603만 명을 기록하였으나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는 2,325만 명에 불과함

6) 조선규(2011, 10), “목표 소득대체율 달성 방안 모색”,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

7) 东吴证券(2017, 10), “重磅政策红利落地：带来万亿长期资金和年金保险蓝海市场”